



영화 '국제시장'에서 파독광부 시절 주인공 이야기의 실제 모델인 권이중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1월 5, 6일 부산수영 하나님의 교회에서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특강을 펼쳐 청소년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올바른 인성교육으로 미래세대 길잡이 역할 톡톡

하나님의 교회, 전문가 초청 청소년·학부모 대상 인성특강 화제

“어떤 풍파에도 꿈 포기하지 마세요” “나눔의 삶 살길” 파독광부 출신 권이중 교수가 전한 희망 메시지 ‘공감’ 서울·부산에서 ‘아버지전’...관람객 10만여명 다녀가

2000년대생이 온다. 현재의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비옥한 내일의 핵심적 에너지원으로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처럼 가까운 미래, 사회의 중요한 인재로 활약할 것이다. 이 무한한 가능성을 잘 가꾸고 보살필 책임과 의무가 기성세대들에게 있다. 어른들의 삶은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고 부모 세대의 끊임없는 이해와 격려 속에 10대들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 교회·총회장 김주철 목사)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기를 응원하며 인성교육, 체험학습, 봉사활동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해왔다. 특히 꾸준히 개최해온 청소년 특강은 학생들과 부모에게 올바른 인성 함양은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지식과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교수, 교장, 변호사 등 각계각층 관계자들이 전문지식과 사회경험, 인문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진로와 꿈, 자기계발, 인간관계, 나눔과 봉사, 학교폭력 예방, 4차 산업혁명 같은 10대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주제로 강연했다.

올해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포항, 김해, 목포, 군산 등 전국 각처에서 진행된다. 구미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인성특강을 개최

했고, 전주에서는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자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 본당인 새예루살렘 관교성전에서도 환경보호를 주제로 일상에서부터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자녀들에게 꿈, 부모들에게는 지표를

부산에서는 1월 5, 6일 이틀에 걸쳐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명사 초청 특강이 열렸다. 강연자는 영화 ‘국제시장’에서 파독광부 시절 주인공 이야기의 실제 모델인 권이중 한국외대 명예교수(80).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인 권 교수는 강연을 통해 지나온 삶의 궤적을 되짚으며 참석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한편, 청년, 청년, 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의 청중들에게 공감과 호응을 일으켰다.

이번 강연에는 총 2500여 명이 참석했다. 하나님의 교회 관계자는 “이 강연이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응원하는 동시에 세대 사이 단절과 불통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연이 열린 부산수영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현재 ‘진실, 아버지를 잃다’전(아버지전)이 진행 중이다. 아버지의 묵묵한 사랑을 주제로 한 이 전시는 서울과 부산에서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아버지의 삶을 담은 '진실, 아버지를 잃다' 전 전시회장.

열려 아버지의 삶과 가족애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는 평가 함께 10만여 명의 관람객을 맞았다. 아버지전에는 권 교수의 파독광부 시절 사진과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다.

파독광부 시절, 생사를 넘나드는 막장에서 희미한 안전모 랜턴에 의지해 공부를 이어갔다는 권 교수는 지독한 향수병에 시달리면서도 13년을 더 독일에 머문 이유에 대해 “단 하나, 교사가 되겠다는 ‘꿈’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독일 국립사범대의 유일한 외국학생으로 아헨대에서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권 교수는 1979년 교수 신분으로 고국 땅을 밟았다.

권 교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풍파에도 꿈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며 “오직 자기 주도적인 삶의 태도만이 꿈을 지킬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기성세대들에게는 자녀의 성장 시기에 따라 교육 방식도 변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긍정적이고 온화한 말과 생각으로 힘이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어머니는 모든 교육의 첫발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는 가정부터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강연에 참석한 이현주(45·부산 해운대구) 씨는 “아이에게 ‘너를 사랑한다’는 식의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강연에서 들은 내용들을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세 딸을 둔 최용문(48·부산 기장군) 씨는 “교수님의 삶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라서 울컥했다. 나 역시 조금은 겪었던 일들”이라며 세대와 세대의 중간 입장에서 강연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때에 비해 지금 세대 사람들은 기회가 많다.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자기주도적으로 잘 하자’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려웠는데 강연에서 대신 얘기해주니 너무 좋았다”고 만족스럽게 웃었다.

조나영(18·부산 기장군) 양은 “아버지전에서 사진과 글로 봤던 이야기들을 실제 경험자를 통해 듣게 되니 더 생생히 와 닿았다. 학교에서 ‘지나간 역사는 되돌아온다’고 배웠다. 어른들이 겪어낸 힘든 시기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혜진(28·부산 동래구) 씨는 “힘든 환경에서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안고 가족들을 위해 고생한 교수님 세대의 삶이 마음에 남는다. 외동딸에 집안의 기둥으로 책임감을 느끼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힘내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권 교수의 특강은 1월 19, 20일 서울관악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열려 아이들에게 꿈을, 부모 세대에게는 자녀교육에 대한 지표를 선물하는 뜻깊은 시간을 이어갔다. 연인원 3500명규모가 참석해 권 교수가 들려주

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들려다웠다.

● 나눔·봉사로 다듬어지는 아름다운 인성

“청소년들 모두 나눔과 봉사를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소유보다는 의미 있는 삶에 초점을 맞춰 살았다.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인성교육의 중요한 장이 된다.”

평생 교육학 연구에 매진하며 국내 교육 발전을 이끌어온 권 교수는 특히 청소년 교육에 힘을 쏟았다. 현재는 한국외대 명예교수이자 아프리카아시아인민교육후원회(A DRF) 회장으로 나눔과 봉사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인성교육의 중요한 덕목이 나눔과 봉사”라고 강조하는 권 교수는 하나님의 교회가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언급하며 인성교육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채로운 방법으로 미래세대를 지원하고 있다. 동·하계 학생캠프를 통해 인성교육은 물론 독립기념관, 박물관, 법원, 과학관 등을 견학하며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소외이웃을 위한 연탄배달, 농촌일손돕기, 요양원 청소봉사, 환경정화 등 자원봉사 실천으로 배려와 존중,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배운다.

총회장 김주철 목사는 “성장기의 경험이 인생을 좌우한다. 학생들이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알아지는 것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응원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지구를 구하자” 패기로 뭉친 청년들 ‘ASEZ’·‘ASEZ WAO’

환경·인권 위해 전세계 활동 UN 등 국제기구도 적극 동참

지구촌을 돕는 이타적 활동에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앞장서고 있어 더욱 귀감이 된다. ‘Save the Earth from A to Z (처음부터 끝까지 지구를 구하자)’라는 의미의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대학생봉사단 ASEZ와 여기에 ‘We Are One (우리는 하나)’이라는 뜻을 더한 ASEZ WAO는 열정과 패기로 각국에서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포럼 및 홍보캠페인, 기후변화 대응과 플라스틱 감축 캠페인, 범죄예방을 위해 함께 범죄를 줄이자는 ‘Reduce Crime Together’ 캠페인을 진행하고, ‘인권의 날’이 있는 12월에는 ‘인권의 날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세계인권선언을 알리고 인권의식을 고취했다.

ASEZ는 2019년 8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제68차 유엔 시민사회 콘퍼런스(전 유엔 DPI/NGO 콘퍼런스)에 초청받아 ‘청년 혁신과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며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청년의 역할을 조명하기도 했다. ‘스펙 쌓기’ 대신 어려운 일을 돕고 지구촌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전진하는 청년들에 대해 유엔 등 국제기구와 정부, 기관, 대학, 비정부기구(NGO) 등도 감동하여 적극 협력하고 있다. 국제기관장과 대학총장,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은 자문위원직을 흔쾌히 수락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로버트 후버 노벨화학상 수상자 등 각계각층 5만7000여 명도 지지서명으로 격려했다.

2020년 새해를 맞기 바쁘게 청년들의 활동은 활발하다. ASEZ는 30개국 57개 지



하나님의 교회 새예루살렘 관교성전에서 개최된 ‘2019 전 세계 아세즈 정상회의’. 42개국 2500여 명이 참석해 전 세계 범죄예방을 위한 대학생의 역할을 모색했다. 오른쪽 사진은 인도의 ASEZ WAO 회원들이 인도 푸네 펄프리치치와드에서 직접 만들어진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모습.

역에서 ‘Reduce Crime Together’ 캠페인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정화와 인성교육을 전개하고, ASEZ WAO는 28개국 59개 지역에서 지구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No More GPGP(Great Pacific Garb

age Patch·태평양 플라스틱 쓰레기섬) 프로젝트를 펼치는 중이다.

77억 인류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가 되어 세계를 누비는 청년들의 행보가 우리의 내일에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